

마음의 눈물·치유의 물방울 ... 당신도, 내 생각 하시나요?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자기 치유 그림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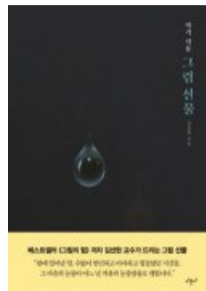
김선현 지음

“인생 회로애락의 모든 것을 부드럽게 포용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물방울은 전쟁 등으로 인해 아픈 우리 사회의 과거를 대하는 작가의 화해와 치유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고 홀로 창밖을 보며, 때론 혼자만의 장소로 가서 물소리를 틀어 놓고 울고 있는 시간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작가는 치유의 에너지와 인생의 회로애락을 물방울로 녹여 보았습니다. 창밖을 타고 주르륵 내리는 물방울은 편안합니다.”(본문 중에서)

김창열 화백이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다. 어느 날 캔버스 위에 뿌려 놓은 물이 햇살에 영롱하게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존재의 충만함을 느꼈다. 물방울 작품의 효시는 그렇게 탄생했다.

저마다 물방울을 정의하는 것은 다를 터다. 여러 답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의 눈물’, ‘치유의 물방울’로 말한다면 그는 삶에 대한 통찰과 남다른 감성을 소유한 이다.

그림을 통해 평안을 찾고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김선현 박사는 미술치료계 권위자다. 그림을 심리에 활용해 마음이 다친 이들을 위로한다. 이번에 한국화가 25인의 그림을 모티브로 펴낸 ‘자기 치유 그림 선물’ 또한 치유와 평안, 행복과 기억 등을 키워드



로 한다. 지금까지 저자는 ‘그림심리평가’, ‘그림 속에서 나를 만나다’ 등 위로와 휴식, 치유를 주제로 한 책을 발간했다.

이번 책도 그 같은 연장선의 일환이다. 작가 인터뷰, 도록, 작가 노트, 평론 정보를 참고해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냈다. “원고를 쓰고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미술을 더더욱 사랑하게 됐다”는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진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했지만 행복지수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OECD 기준 자살률 1위 국가다. 지난해 기준 행복지수는 61위에 머물 만큼 현저히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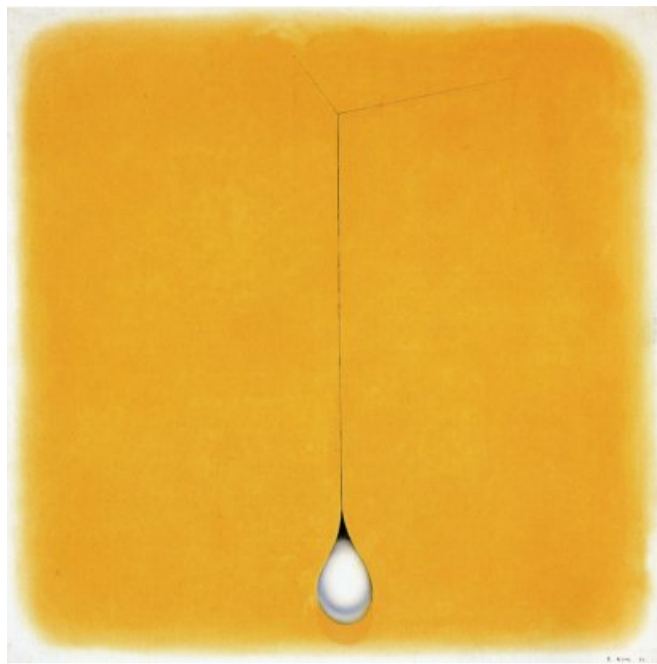
무엇 때문인가.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다. 적잖은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화려한 이면에 감춰진 속내를 들춰보면 남모를 아픔과 고통이 짐작돼 있다.

저자는 내면 상처를 치유할 방법으로 그림을 제시한다. 평안을 찾고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그림을 이야기한다.

“위로, 치유, 사랑, 기쁨, 안정, 평화, 희망, 행복 등을 주는 작품을 통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민중화가로 활동했던 강요배 작가는 1990년대 제주항쟁 연작을 그렸다. 그의 이름 ‘요배’에는 한 서린 제주의 아픔이 녹아 있다. 당시 “김철희, 박순희 등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 되어도 구분 없이 처형된” 일을 겪었던 작가 아버지는 ‘내 아이와 같은 이름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심을 한다. 요나라 요(堯), 북돌울 배(培)라는 이름이 탄생한 연유다.

당시 살아난 이들은 봄날 유채꽃만 보아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생각나 가슴이 무너졌다. ‘동백꽃 지다’ 작품에는 “고귀한 생명



김창열 작 '현상 No.1'

이 하나들 스러져간 그 날의 기억을 절대 잊지 말라”는 아련한 슬픔이 배어 있다.

김연화 작가의 ‘자작나무 이야기’는 마음뿐 아니라 시각적으로 청량감을 준다. 예로부터 자작나무는 촛불 대용으로 쓰였으며, 연인들이 사랑의 글귀를 쓰기도 했던 낭만적인 나무다. 자작나무 그림을 응시하면 탁 트인 시원함과 향기로운 바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전용환 작가의 ‘순환 변형’에서는 강하지만 리듬감 있는 이들의 선한 영향력을 떠올리고, 박서보 작가의 다양한 선과 화려



신철 작 '기억 풀이 - 고백'

한 색이 결합된 ‘묘법’에서는 “수많은 사건과 시간을 지내면서 혼돈에서 벗어나서 점점 통찰에”이르는 삶의 여정을 사유하게 된다. <미문사·1만9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쩌면 스무 번

편혜영 지음

정이현 소설가는 이 소설가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정교하고 섬세하게 세공된 열쇠를 달았다. 필요불가결한 단문들로 이루어진 서사를 쫓아 맨 끝에 다다른 뒤에야 독자는 눈을 깜빡이다 이내 탄식하게 된다. 이 아름다운 열쇠와 맞아떨어지는 자물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올해 등단 22년차를 맞은 편혜영 작가는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와 관계를 새롭게 돌아보게 하는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에 작가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쓴 단편들 가운데 성격이 유사한 8편을 골라 창작집으로 묶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어쩌면 스무 번’은 인물들이 머물던 공간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시작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작품집에는 2019 김유정문학상 수상작 ‘호텔 창문’도 수록돼 있어 역량을 가늠할 수 있다.

표제작 ‘어쩌면 스무 번’은 주인공 ‘나’가 차매를 잃은 장인을 모시고 아내와 함께 시골로 이사한 이야기를 다뤘다. 이웃집이 300m 넘게 떨어져 있을 만큼 인적이 드문 마을이다. 어느 날 한 보안업체 직원들이 집을 찾아온다. 그들은 위험에 노출되면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회사와 계약할 것을 강요한다. 나와 내내는 엔지 모를 공포를 느낀다. 재산과 목숨을 지켜준다고 강조하는 그들이 다른 무엇보다 아내와 나를 불안에 휩싸이게 한다.

이처럼 작품집에 수록된 소설들은 외견상 목격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폐쇄된 공간에 부러진 인물들을 그려낸다. 은근한 긴장감은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환기한다. 간결한 문장으로 그려낸 편혜영 특유의 물거품 서스펜스는 인물을 둘러싼 이중의 조건, 아이러니한 상황과 맞물려 소설적 재미를 선사한다. <문학동네·1만3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간의 탐험

앤드루 레이더 지음·민청기 옮김

지난 2월 미국의 화성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가 발사된 지 7개월 만에 화성에 도착했다. 아랍에미리트의 화성 탐사선 아랍, 중국 첫 무인 화성 탐사선 텐윈 1호도 화성 대기권에 진입에 성공했다.

인간의 호기심과 열망이 만들어낸 탐험 역사를 아우른 ‘인간의 탐험’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과 역동의 세계사가 녹아 있다. 캐나다 작가이자 항공우주 엔지니어인 앤드루 레이더가 저자. 그는 왜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의 극단에 서려 하는지 방대한 사료와 사실을 토대로 들여다본다.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인구 증가, 환경오염, 자원 고갈 같은 문제에 직면하면서 인류의 문명이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 과도 무관치 않다. 우주는 인류에게 무한한 보고이며 끝이 보이지 않는 최고의 탐험 영역으로 다가온다. 무엇이 수많은 탐험가들 바다 너머 미지의 땅으로 이끌었을까. 탐험은 어떻게 인류를 풍요롭게 했을까. ‘너머의 세계를 탐하다’라는 부제처럼 책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다. 냉전시대 초기만 해도 미국에는 유인 우주 비행 기술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항공우주국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생명유지 기술, 정수장치, 무선 전송공구, 방화복, 무선데이터 전송, 원격조종장치 등 2000가지가 넘는 파생기술을 개발했다.

시대에 따라 등장하는 탐험가들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콜럼버스, 바스코 다가마, 마젤란, 허드슨, 록 선장 등 수많은 탐험가들은 당시로서는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결국 세상의 경계를 넓힌 주역이었다.



<소소의 책·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살자편지

정청라 외 지음

온난화 및 기후 변화 완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청소년기후행동은 지난 2019년 9월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청소년들은 기후 위기의 시대에 태어나 가장 오랜 시간을 앞으로 이 지구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며 “어른들이 평범하게 누렸던 권리와 일상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고 외쳤다. 하지만 그 후 청소년들은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다.

아홉명의 농부들이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다음세대를 위해 펜을 들었다. ‘살자편지’는 흥천, 순창, 흥성, 장흥 등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농부들의 이야기다. ‘밭 짓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저자 정청라, 커뮤니티부의 디자이너 보파, ‘그래서 산에 산다’ 저자 최성현, ‘생태부엌’ 저자 김미수, 옷을 키우는 목화학교 교장 최기영, 천연발효빵공장 ‘나의 밀밭’ 방장 이하연 등이 저자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작은 동부들이 들려주고픈 이야기’라는 부제처럼,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담겼다.

책은 ‘채식과 생태 부엌’, ‘목화와 슬로패션’, ‘밀 농사와 자립’, ‘씨앗과 다양성’, ‘고향과 친구들’ 등 아홉개의 키워드로 구성됐다. 소비에 의존하지 않는 삶, 성장을 목표로 경쟁하지 않는 삶, 먹거리를 스스로 길러 먹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삶, 자연과 교감하며 사는 삶, 오래된 미래를 꿈으로 실천하는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들은 “자연을 지배하고 다 써 없애 버리는 길에서 벗어나 땅과 자연이 다시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돕는 길, 지속 가능한 자급과 살림 길로 돌아가자”고 전한다.



<니은기역·1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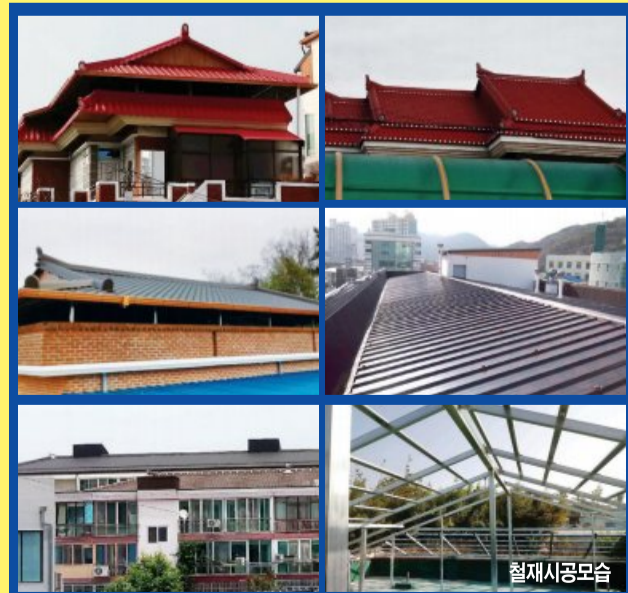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입니다.

MODERN (트윈스틸)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